릇는 1964년 10월 말 현재 현금 192만7948원, 쌀 117가마 6말, 밀가루 128부대, 연필 597자루, 서적 1754권, 의류 3052점, 야채 2트럭, 기타 4785점으로 결집됐다. 이웃돕기 운동본부에 수집된 이 정성은 전국 42개 동과 12개 학교에 보내져 모두 2만5192명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이때의 신문 월정 구독료는 100원(1부는 5원)이었고 쌀 한 가마값은 4600원을 웃돌았다.

拉北人士 송환 百萬人 서명운동

1964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14돌을 맞아 조선일보는 또 하나의 기록적인 캠페인을 펼쳤다. 6월 25일자 제1면 17단 중에 9단을 사용한 캠페인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들이 등장했다.

> 拉北人士 送還을 위한 百萬人 署名運動/6·25 열네 돌 期해 全國的으로 展開/生死조차 모르는…내 아버지·내 남편·내 아들·내 오빠 그리운 그 사람을 돌려보내라/今秋 유엔총회까지 實現目標/國際機構와 손잡고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前文으로 시작했다

> 오늘은 열네번 째 맞는 6·25돌. 생각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해야 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각키는 날이다. 共産 北魔의 不意의 南侵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災難을 가져왔고, 軍人을 [illegible]한 民間人의 人命 피해만도 近百萬을 헤아린다.
>
>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하여는 諦念이라도 해야 하겠지만, 내 父母, 내 男便, 내 子息을 强制 拉北당한 數많은 家族들은 오늘도 가슴 메어 북녘 하늘을 쳐다보며 눈물짓고 있다. 끌려간 그이들도 지금은 北韓 땅 어느 골짜기 强制收容所에서 苦役을 겪으며 家族을 그려 울고 있는 것이다.

남북인사 송환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전개를 선포하는 1964년 6월 25일자 조선일보 제1면.

한때 政府와 大韓赤十字社가 유엔 및 國際赤十字 機構에 '失鄕私民' 問題를 提起, 人道主義에 立脚한 送還에 努力도 했건만 共産 徒輩들의 頑强한 拒否로 끝내 햇볕을 보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으니 拉北人士 歸鄕問題는 영영 默殺되고 말 것인가?

조선일보사는 6·25 열네 돌을 期해 이 民族的 悲願을 푸는데 앞장설 것을 決意, 大韓赤十字社의 協贊 아래 '拉北人士 送還을 위한 百萬人 署名運動'을 全國的으로 展開한다.

이 기사에서 납북자 수는 1만7500명으로 추산되나 가

족들이 국제적십자에 신고한 숫자는 7034명이며 이 중 남자는 6884명 여자는 150명으로 확인됐다. 또 납북자의 연령별·직업별·출생지별 통계가 밝혀졌다. 납북 당시 최고령자는 89세였고 최연소자는 18세였다. 납북자 통계에는 조선일보사의 方應謨 사장도 물론 포함돼 있었다.

이 날 제3면에는 대한적십자사가 제공한 '그 동안의 송환교섭' 과정과 1957년 북한이 국제적십자회의를 통해 건재하다고만 밝힌 납북인사 357명의 명단을 게재했다.

1964년 조선일보는 창간 44주년을 맞아 '半世紀의 證言…횃불은 흐른다' 등 장기 연재물을 의욕적으로 기획하는 등 지면쇄신에 힘을 쏟고 있었다. 그러던 중 6·3사태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신문은 다시 검열 당국의 가위질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암울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됐고 '납북인사 송환을 위한 서명운동'이 바로 그 방안의 하나로 채택됐다. 당시 전두 겸 발행인이었던 方文榮은 자신의 저서 '조선일보와 45년'에서 그때를 이렇게 증언했다.

> "6·25 특집을 위해 영락교회 한경직(韓景職) 목사와 대담하는 기회가 왔다. 그 자리에서 '조선일보 사장도 6·25 때 납치되어 소식을 모르고 있을 테니 생사를 확인하는 무슨 방법이 없겠는가'라는 말이 나왔다. 이에 힌트를 얻어 신우회 [illegible] 국장, 김경환(金庚煥) 부국장과 함께 '백만인 서명운동'을 하게 된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 '自由와 人權回復을 위한 學族的 운동'을 열의를 가지고 앞장서 전개했다. 편집부국장 金庚煥을 본부장으로 '서명운동본부'를 설치하고 편집국 사회부가 주축이 되어 이화여대 숙명여대 이화여고 숙명여고 진명여고 등의 협조를 얻어 자원봉사대 150명을 확보했다.

6월 26일자 사설 '百萬人의 署名運動을 벌이면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 운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 坐視할 수 없는 同族愛에 북받쳐 조선일보사는 드디어 큰 뜻을 품고 大韓赤十字社의 協贊을 얻어 '拉北人士 送還을 위한 百萬人의 署名運動'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休戰協定 中에 '失鄕私民'의 送還措置 條項이 없는 바 아니지만, 이미 一片의 休紙化한 지 오래요, 國際赤十字社를 통한 救出運動을 끈덕지게 펴보았으나 人間의 尊嚴性을 認定하지 않는 共産傀儡들이 뾰죽한 反應을 보여주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는 全世界의 輿論에 呼訴하고 '유엔'의 權威에 매달릴 길밖에 남지 않았다. 北韓傀儡集團을 認定하지 않고 있는 大韓民國 政府로서는 公式機構를 통해서 抗議할 수도 없는 難處한 立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비록 一民間紙의 微弱한 힘이라 할지라도 이 '百萬人의 署名運動'을 통하여 全國民의 뜨거운 呼應과 協力만 있다면 우리의 피맺힌

직업별 납북자

직업	인원	직업	인원
정치인	85	노동	177
공무원	1,359	농업	1,005
판검사	34	학생	677
변호사	72	광업	24
언론인	72	종교인	82
기업	208	교육자	355
상업	966	의료원	199
철공업	162	예술인	36
토건업	66	저술가	15
은행원	94	어업	6
회사원	737	임업	6
통역	16	무직	248
기술자	330		

출생지별 납북자

출생지	인원	출생지	인원
함경북도	87	황해도	312
함경남도	226	강원도	545
평안북도	295	서울	2,199
평안남도	216	경기도	1,695
충청북도	253	경상북도	455
충청남도	312	경상남도	203
전라북도	133	제주도	23
전라남도	180		

연령별 납북자

연령	인원	연령	인원	연령	인원
18	1	41	199	64	31
19	2	42	215	65	62
20	5	43	152	66	19
21	5	44	177	67	33
22	16	45	164	68	91
23	45	46	138	69	24
24	97	47	141	70	20
25	161	48	129	71	18
26	201	49	155	72	87
27	263	50	124	73	6
28	270	51	131	74	7
29	270	52	92	75	5
30	303	53	14	76	4
31	296	54	101	77	2
32	275	55	82	78	3
33	267	56	96	79	8
34	248	57	70	80	4
35	262	58	86	82	1
36	240	59	72	86	1
37	230	60	82	88	1
38	190	61	59	89	3
39	208	62	48		
40	244	63	45	합계 7034명	

작업을 마감한 결과, 모두 101만1980명이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선일보는 서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을 8월25일자 제1면 머릿기사로 처리했다. 이어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를 표시하며 서명작업을 8월 말로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문에는 조선일보의 '납북인사 송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대해 북한측이 이 운동을 규탄하는 聲討大會를 각 지역에서 개최하는 등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실렸다.

북한 당국은 일제시대 조선일보 주필과 6대 사장을 역임한 安在鴻의 부인이 절간을 돌아다니며 혼자서 10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오자 安在鴻 등 납북인사 15명을 7월 26일부터 방송에 출연시켜 "납북된 일이 없다"는 방송을 강요했고 월남인사 가족들을 동원, 남한측이 북한주민들을 납치해갔다고 억지를 부렸다. 또 북한의 이른바 조국통일위원회는 7월 20일 성명을 발표, "납북이란 있어 본 적이 없다"는 주장을 폈으며 원산 해주 등 북한 각지에서 '拉北人士 送還운동 폭로 규탄 聲討大會'를 열었다. 이 밖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사설을 통해 납북인사들이 북한의 제도를 지지해 "자진 월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납북인사들로 조국평화통일촉진회라는 것을 만들어 평양방송에서 억지 좌담회까지 열었다. 이는 조선일보의 서명운동이 국민운동 수준으로 번져 나가자 북한 당국이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서명록은 102권에 달하고 무게가 303kg이나 되는 분량으로 11개 상자로 포장돼 12월 4일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로 空輸됐다.

方又榮대표, 署名綴을 유엔에 전달

그 해 11월 15일 조선일보 대표이사에 선임된 方又榮이 편집부국장 金尙鉉 및 方乙生(당시 조선일보 회장 方一榮의 장녀)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유엔주재 대사 金容植과 함께 12월 11일 유엔본부를 방문했다.

方又榮은 때마침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었으나, 우 탄트 유엔사무총장이 臥病中이어서 그를 대리한 존 험프리 유엔 인권국장에게 서명철과 '납북인사 송환을 위한 백만인 진정서'를 전달했다.

1964년 12월 11일 유엔본부를 방문한 方又榮 조선일보 대표이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존 험프리 유엔인권국장에게 서명철과 '납북인사 송환을 위한 백만인 진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金尙鉉 편집부국장, 方 대표, 方乙生양(方一榮 당시 회장 令嬡), 金容植 유엔주재 대사, 험프리 국장.

험프리 국장은 方又榮 대표에게 "이 진정서가 1965년 3월에 열릴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처리되도록 동위원회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했고 方又榮 대표는 "유엔이 이 송환문제에 해결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拉北人士 송환 百萬人 署名운동

조선일보는 12월 13일자 제1면에 '百萬人 署名綴'이 유엔에 전달됐다는 기사를 AP통신發로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方又榮은 귀국길에 워싱턴에 들러 미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 윌리엄 번디를 만나 요담했다. 이 자리에서 번디

서울시민들이 거리에서 '백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絶叫는 끝내 全人類의 心琴을 두드릴 수 있고, 그 어느 때인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고 우리는 確信한다.

조선일보가 敢히 同族의 義로운 參與를 바라는 所以가 여기에 있다. 정 가까운 時日 안에 期待를 걸 수 없다면, 날으는 기러기라도, 그리고 마파람에게라도 이 同族愛의 消息을 실어 絶望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불쌍한 拉北人士들에게 끝까지 살아나갈 勇氣라도 주자. '유엔' 人權宣言의 精神이나 人道의 所重함을 아무리 외쳐본들 그들 共産黨에게는 半耳通浮밖에 더 될 것이 없을 것은 빤한 일이겠지만, 우리는 自由民의 資格으로 百번 千번이라도 외쳐야 하고, 人力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서명 운동은 7월 1일을 기해서 전국적으로 전개됐고 조선일보 본사와 지사 지국망을 통해 거리와 직장단위로 이루어졌다. 서울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로네거리, 을지로입구, 서울시청 앞, 신세계백화점 앞, 서울역 앞, 세종로네거리, 동대문네거리, 서대문네거리, 삼각지, 해화동로터리, 을지로6가, 명동입구, 본사 앞 등 14개 지점에서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서명철이 유엔으로 공수된다는 내용을 전하는 1964년 12월 4일자 조선일보. 서명철은 모두 102권에 무게가 303㎏에 달했다.

拉北人士送還을위한

百萬人署名綴

오늘 유엔으로 空輸

本社方又榮代表理事一行

直接傳達次5日「뉴욕」으로

101만1980명이 署名

政局은 한일회담 반대 시위로 들끓고 언론은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 낮서는 혼란 속에서도 이 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은 대단했다. 자원봉사원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뙤약볕 아래에서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제공했고 납북자 가족들은 운동 진행요원들을 격려했다. 서명운동 첫날에 벌써 서명자 수가 5만 명을 넘는 등 서명자들이 줄을 이었다. 이 땅에 반공의식과 휴머니즘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이 캠페인은 반영했다. 헤어진 血緣 親知와의 재회를 국제 여론에 호소하려는 이 同胞愛와 人間愛 캠페인에 각급학교 학생들이 나섰고, 北韓解放統一促進會 등의 사회단체는 물론 '꽃씨회' 같은 각종 봉사단체와 계몽단체가 자진 참여하여 7,8월의 뙤약볕이 내려 쬐는 거리에서 서명을 받았다.

이를 위해 조선일보는 6월 28일자에 '백만인 서명운동 그 의의와 방법'에 관한 좌담회를 특집으로 처리했고, 7월 5일자부터는 7월 29일까지 '기다리는 사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납북인사 가족의 애타는 마음과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7회에 걸쳐 내보냈다. 이때 소개된 납북인사는 爲堂 鄭寅普, 孫晉泰, 菊史 吳夏英, 幾堂 玄相允, 柳東悅, 誠隱 金東元, 一光 明濟世 등이었다. 또 사회면에는 서명운동 관련 기사를 수시로 크게 보도했다.

납북인사 송환을 위한 서명운동은 서명을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82만명을 넘어섰고 51일 만인 8월 20일에는 목표인 100만 명을 돌파했다. 8월 말로 서명

는 "남북인사 송환을 촉구하는 귀사의 서명운동은 대단히 장한 일"이라고 감탄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1만7500명으로 추산되는 강제 남북 인사와의 재회를 애타게 기다리는 이산가족들의 悲願은 세계에 알려졌고, 이 진정서는 이듬해 1965년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 제출되어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았다.

朝日廣告賞 탄생

조선일보사는 1964년 국내에서 최초로 창작광고상을 제정했다. 그것은 언론계는 물론 광고계에서도 사상 최초였다. 이 상의 명칭은 '조선일보광고상'을 줄여 '朝日廣告賞'으로 정했다. 응모작품은 조선일보 광고란에 실리는 廣告를 참조해 만들어 제출하도록 했다. 창작광고상인 만큼 이미 신문 등을 통해 발표된 작품이나 모방 또는 표절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1964년 9월 9일자 제2면에 실린 제1회 朝日廣告賞 작품모집 광고는 이 상을 제정한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 근래 우리의 광고계는 기업의 발전과 더불어 그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표현의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나 많은 발전이 두드러게 보이고 있습니다.
>
> 이는 상업미술가와 광고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부문의 광고기술자들의 광고에 대한 확고하고도 올바른 신념—즉 올바른 광고(상품 서비스 및 기업광고)의 표현으로 구매자를 계몽하고 효율적 상품으로의 유도로써 대량생산과 대량판매를 가능케 하고 상품의 가격을 인하시켜 좋은 상품을 대중에게 골고루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기업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길이 되고 나아가서는 사회에 공헌하는 길임을 인식하여 부단히 노력해온 結晶일 것입니다.
>
> 금반 본사 광고기획실에서는 朝日廣告賞을 제정하여 광고작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유능한 신인의 발굴을 꾀하여 상업미술가를 비롯한 각 부문의 광고기술자들의 사회적인 지위향상으로 산업과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朝日廣告賞 응모용 제1호 과제광고는 한독약품의 '헤스탈'과 조미료 '미원' 등 모두 18개 업체에서 참가했다. 첫해 창작응모 작품은 238점으로 당시 광고계에 큰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초대 심사위원으로는 이화여대 미술대 교수 趙炳惠, 홍익대 교수 林應植, 한국PR연구소장 金容重, 한국조폐공사 도안실장 崔仁澤, 디자인연구소장 盧喜英 등이었다.

이때 영예의 금상인 朝日賞은 '프리마로 健康證賞을!'을 제작한 동아제약의 李李一이 차지했고 은상인 準朝日賞은 '헤태밀크 빵' 광고를 제작한 산업경제신문

사의 高東水가 받았다.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한국PR연구소장 金容重은 1964년 11월 17일자 조선일보 제6면에 게재된 심사평에서 조선일보의 광고상 시상이 "매우 시기에 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기연에 있어서도 다대한 바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illegible]의 수상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심사평을 밝혔다.

제1회 조일광고상 금상 수상 작품.

1967년 신설된 朝日광고상 '[illegible]' 특상작품 '개구장이'. 광고문안은 소설가 [illegible]이 쓴 것이다.

'아이디어'가 뛰어났고 '레이 아우트' '일러스트레이션' '카피' 등 나무랄 데 없이 잘 짜인 광고였다.

물론 전문광고라는 것은 응용미술 그 자체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상품을 팔아먹는 미술인 만큼 광고로서 구성되는 요소 하나하나가 [illegible]와 결부되어 있어야 하겠고, 또한 상호간의 '이미지' 상승을 일으켜 강력한 [illegible]이 발휘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작품은 외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광고였다고 생각한다.

[illegible]은 1965년의 제2회 대회에 벌써 응모작품이 377점으로 한 해 전에 비해 [illegible]나 증가했다. 1967년에는 광고산업에 전문인력을 발굴, 진출시키기 위해 조일광고상에 '신인부'를 신설해 일반부와 나누어 작품을 공모했다. 신인부의 응모 대상은 전문학교와 대학의 광고 관련 부문 전공학생들이었다.

조일광고상은 1973년 10주년 때 대상작품이 표절로 밝혀져 그 해 10월 22일자 조선일보에 입상취소 공고문이 게재되는 아픔을 겪었고, 1982년에는 일본 잡지에 게재된 광고를 모방한 작품이 창작광고 장려상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수상이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도 겪어야 했다.

제20회 조일광고상을 시상한 1983년에는 '조일광고상'이라는 명칭이 '조선일보 광고대상'으로 바뀌었으며 국제적인 광고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CAA상(Chosunilbo Advertising Awards)이라는 영어 약칭을 쓰기 시작했다. 1987년에는 응모작품 수가 1000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울 만큼 이 상은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조일광고상 수상 작품들은 한국 광고산업이 변화하고 발전해온 과정의 기록이다. 역대 수상작품들과 심사평은 1993년 간행된 '조선일보 광고대상 30년 수상작품집'으로 모아졌다. 조선일보 광고국 부장대우 金吉同은 이 책 속에서 '조선일보 광고대상 30년사'를 정리하면서 "조선일보 광고대상은 광고주나 소비자 모두에게 광고의 효용성과 전문성을 인식시켜 주는데 앞장서 왔고, 아울러 각 기능 부문별 광고 전문인력의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한 권위 있는 등용문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